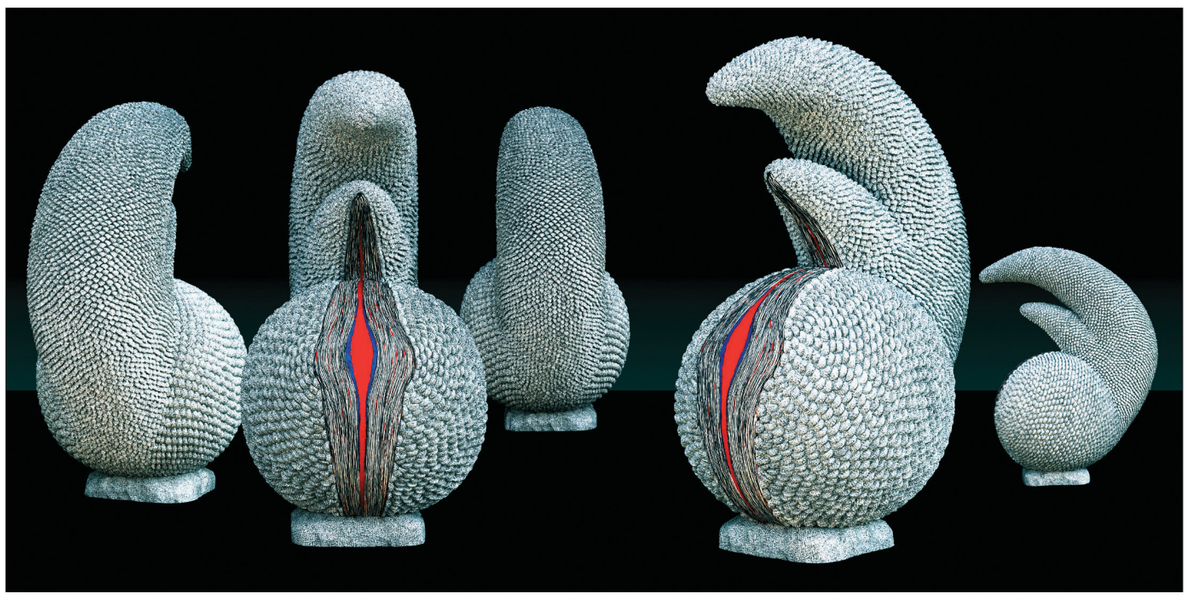
만다라에 담긴 '空'… 단 한 번 붓질로 역동감

허회태 개인전 3월 19일~27일,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서



허회태 작가는 한 번의 붓질로 역동적인 작품을 표현해 세계 화단의 주목을 받아왔다. '비상비비상(非想非非想)' 시리즈는 만다라 형식에 불교의 공사상을 담아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 시간의 그물로 건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느 것도 사라지지 않는다. 시간은 존재하는 것들의 착각이다. 어느 누구에게는 순간이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영원이다."

'감정'(emotion)과 '서'(calligrahy)를 합성해 서예와 그림을 융합한 독특한 장르인 이모그래피(emography)를 만든 허회태 작가는 한 번의 붓질로 역동적인 작품을 표현해 세계 화단의 주목을 받아왔다.

국내는 물론 스웨덴,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 호평받는 허회태 작가가 개인전을 갖는다. 3월 19일~27일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회화와 조각설치 등 101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2차원의 평면을 벗어나 3D작품으로 표현한 신작 회화와 조각설치 작품은 서예, 이모그래피 등과 조화를 이루며 생명의 근원에 접근하는 철학적 경지를 보여준다. 이번 전시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비상비비상(非想非非想)' 시리즈는 만다라 형식에 불교의 공사상을 담아냈다.

특히, 연꽃 형상을 본뜬 작품은 우주와 생명 탄생의 연관성을 만다라 형식으로 승화시켰다고 작가는 말한다. "환희의 절정을 연꽃이 받들고 있는 형상으로 담아냈습니다. 우주의 형상이 분해되어 무한 공간의 우주로 에너지와 생명이 확산되는 기운을 표현한 작품이죠. 지구의 모든 에너지는 땅속의 마그마로부터 시작되며 모든 인간의 탄생은 어머니의 태반으로부터 시작되죠. 군상들처럼 보이는 조각들이 다시 모여 천지 창조를 꿈꾸는 새로운 탄생의 순간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 탄생의 순간이 곧 작가의 깊은 사유와 철학을 바탕으로 빚어낸 '비상비비상(非想非非想)'이다. 작가는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를 가진 이 제목은 불교의 공사상에서 가져왔습니다. 금강경의 공사상에 근거한 것이죠. 불교철학에 심취하면서 매일 아침을 반야심경을 쓰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이렇다보니 작품의 방향도 불교의 공사상을 담는 방향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형적 형식은 만다라에서 빌려왔는데 만다라는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空 사상 담은 '비상비비상' 시리즈
3D 작품 신작회화 등 101점 선봬
서예 · 그림 융합 '이모그래피' 개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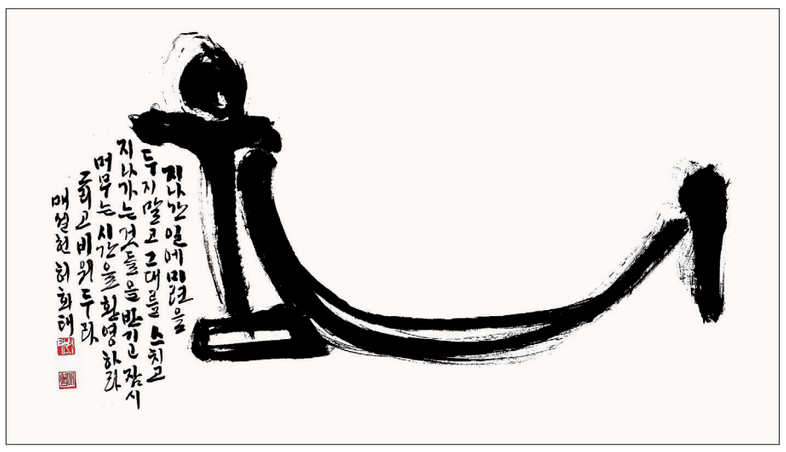
호기(浩氣), 일유(逸遊), 균협(均浹), 비움 등의 이모그래피 작품도 눈에 띈다. 특히 '비움'은 'ㅂ'을 그릇 모양으로 표현해 소유와 집착에서 벗어남을 말한다. 작가는 "'비움'의 글자를 회화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마치 좌우로 서있는 사람이 빈 그릇을 향해 서있는 모습에 의미를 부여해 형상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소유의 집착에서 벗어나 불필요함을 버리고 비움의 이치와 지혜를 제시하고자 했다"고 전한다.

먹선의 강한 터치와 우연의 효과를 보여주는 균협(均浹)은 마음과 붓이 하나됨을 보여준다.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형상의 속박을 떨쳐 버리면 물상의 본질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종종 나는 듯 뛰는 듯, 소리를 지르는 듯, 바람이 스치는 듯, 마음에 떠오르는 미묘하고 다양한 심상의 찰나를 폭발적인 동적 미의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한편, 허회태 작가는 1995년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대상을 시작으로 원곡서예상, 서예문화상, 서예대전 전각 우수상,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및 특선8회, 한·카문화재단 주최 국제미술전 최고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연변대 미술대학 회화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논문 및 저서로는, '안진경 서예술의 소고', '전각 예술의 생명이 의미하는 표현형식', '書에 근원을 둔 회화의 현대적 표현연구', 이모그래피와 전각 작품집인 '반야심경', '명언 명시집' 등이 있다. (02)588-3324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비움'은 'ㅂ'을 그릇 모양으로 표현해 소유와 집착에서 벗어날 것을 말한다.

양산시립박물관 12월까지 이달의 전시

3월 첫 전시로 지역 출토 유물 금동반가사유상 공개

금동반가사유상 등 문화재를 매달 새롭게 관람할 수 있는 전시가 있어 눈길을 끈다. 양산시립박물관은 3월~12월 10개월 동안 매달 양산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보물급 유물과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교체 전시하는 '이달의 전시'를 시행한다.

양산시립박물관은 "소장품 중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우수하고 지역역사 문화를 대변하는 엄선된 작품들을 박물관 로비에 전시, 관람객들이 보다 빠르고 쉽게 문화재를 접할 수 있도록 전시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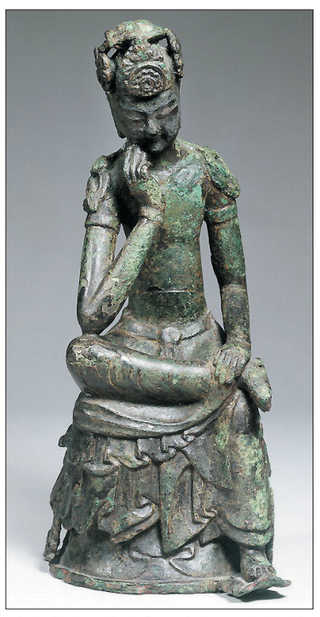
특히 이달의 전시는 양산시립박물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피 위크엔드(Happy Weekend) 사업과 연계해 작은음악회, 가족영화상영 등이 함께 진행된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2시 박물관장으로부터 직접 유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할 계획이다.

첫 시행되는 이달에는 비교적 국내외에 잘 알려진 양산 유산동에서 출토된 금동반가사유상을 테마로 전시한다. 이 작품은 7세기 삼국시대 조각의 백미 중 하나로 손꼽히는 보물급 문화재로, 양산의 찬란한 불교문화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손색이 없다.

신용철 양산시립박물관장은 "이번 전시 설명회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반가사유상의 발견 경위와 에피소드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미국 등 해외 전시를 통해 세계 만방에 양산을 알린 금동반가사유상의 위상, 작품과 연관된 삼국시대 미륵신앙 등 다양한 문화사적 이야기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 (055)392-3322

정혜숙 기자



양산 유산동에서 출토된 '금동반가사유상'

예술세계의 근원과 이상향 나무 속에 투영

장욱진의 '나무전' 4월 12일까지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에서

불자 서양화가 故장욱진 화백(1917~1990)의 나무전이 4월 12일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에서 열린다. 장욱진 화백은 박수근과 이중섭, 김환기 등과 함께 한국의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2세대 서양화가다.

이번 전시에서는 유화, 채색화, 판화, 판화 원판 등 나무를 모티브로 한 장욱진의 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작가에게 있어 나무는 원초적 자연이자, 예술세계의 근원이 되는 이상향 이다.

특히 1983년작 나무(Trees)는 자유로움을 표현한다. 바람을 받아 왼쪽으로 휘어진 특이한 형태의 나무가 완전한 좌우대칭으로 서있고, 중앙의 축으로는 사람과 개, 집, 해가 그려져 있다. 오른쪽 나무 위에 앉은 까치만이 완전한 좌우대칭에서 작은 변화를 준다. 두 그루의 나무는 큰 동양화 붓으로 한 번에 그린 듯한 즉흥성과 자유로움을 보여준다.



1983년 작품 '나무'는 자유로움을 표현했다.

한편, 장욱진 화백은 아내의 법명을 붙인 '진진묘(眞眞妙)'라는 작품을 통해 독실한 불자인 아내의 모습을 표현해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달마상' '팔상도' '사찰' '미륵존여래불' 등 다양한 불교작품을 남겼다. (031)8082-4241

정혜숙 기자

국립경주박물관 토요 인문학 강좌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은 3월부터 '박물관 토요 인문학 강좌'를 연다. 매달 둘째 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 강좌는 신라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신라 왕의 무덤', '불교조각', '금석문', '석탑' 등을 주제로 현직 박물관 큐레이터들이 강사로 나선다.

3월 '고분 벽화로 본 고구려인의 삶과 죽음'을 시작으로 △4월 금석문으로 본 신라 역사 △5월 신라 왕의 무덤 △6월 신라석탑의 기원과 발전 △7월 영혼의 전달자, 오리모양토기 △8월 청자의 시작과 발전 △9월 중국의 토용 문화 △10월 신라의 불교조각 △11월 청동기 시대 고인돌 등이 진행된다.

참여 접수는 국립경주박물관 누리집 '교육 및 행사(참가신청)'에서 진행일 2주 전부터 예약접수가 시작되며,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054)740-7607

정혜숙 기자



